

# ‘달려라 책’ 제9회 전주독서대전

### 9월 11~13일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서 시민 참여형 전시·오감으로 즐기는 독서 프로그램 등 운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서문화축제인 '제9회 전주독서대전'이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달려라 책'을 주제로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주시는 전주독서대전 추진협의체 및 실무기획단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전주독서대전의 주제를 다가오는 10주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재도약하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독서생태계의 역동성을 담은 '달려라 책'으로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과거를 품고 미래를 향해 달리는 책처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전주독서대전을 선보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시립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지역의 도서관·출판계·문화계·교육계·독서 동아리·지역서점 등 지역의 독서생태계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강연과 공연, 경연, 북마켓, 체험 부스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달려라 책'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시민 참여형 전시와 오감으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대표적으로 올해 축제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로 선정된 '꽃'의 저자이자 대표적인 국민 시인인 나태주 시인을 비롯해 아나운서이자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금희 작가,

정세랑 소설가, '전주 올해의 책'에 선정된 김민우·윤일호·최상희·정이현 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강연자가 참여해 독자와 소통하는 장을 연다.

이영섭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전주독서대전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책을 소개하고, 책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독서 경험을 제공해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부터 2026년 올해 9회에 이르기까지 합쳐달려라 전주독서대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제9회 전주독서대전 포스터

# ‘청소 넘어 일상 회복까지’ 저장강박 가구 통합 지원 확대

### 전주시복지재단, 3년 연속 지원 건수·예산 동반 증가... 한국정리수납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도 체결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저장강박 위기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재단은 저장강박 가구의 주거환경 문제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업 예산을 지난 2024년 4000만 원에서 올해 60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현장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재단은 최근 한국정리수납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청소·방역 중심의 환경정비에 정리수납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형 주거개선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현장에 참여해 가구별 맞춤형 공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은 22일 한국정리수납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간 재구성하고 정리 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관계 형성과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형 복지 모델을 구축하

고 있다.

일례로 재단은 저장 강박으로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된 한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청소·방역과 정리수납 서비스를 지원한 뒤, '온도플러스 지원사업'과 연계해 이웃 주민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재단은 앞으로도 이러한 연계 구조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지원하고, 이후 사례 관리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변화와 자립으로 이어지는 지역 기반 복지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저장강박 가구 지원은 청소를 넘어 일상을 다시 세우고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며 "주거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이웃의 온기와 사회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보건소-기전대 치위생과, 요양시설 방문구강건강관리 협력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 대한 체계적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주 기전대 치위생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요양시설 노인들에 대한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실천형 구강보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



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보건소는 이날 협

약에 따라 요양원 입소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건강 교육과 맞춤형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외상노인들에게는 스프레이치트술을 활용한 직접 구강위생관리도 실시하게 된다.

전주시보건소 치위생과 학생들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사업 현장에 참여해 노인 대상 구강 내 청결 관리와 구강 건조증 예방을 위한 입체조, 틀니 세

척 및 관리 등 현장실습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구강관리 보조 방법과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이를 통해 노인들에게는 보다 세심한 구강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 현장을 이해하는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구강 보건서비스를 확대해 어르신 구강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청춘 금손 모여락(樂)!’

### 전주시, '노송광장 나무 뜨개옷 제작' 청년 참여자 모집

전주시는 전주지역 청년들이 취미와 재능을 나누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청춘 재능기부 챌린지'의 제3탄인 '청춘 금손(뜨개질 덕후) 모여락(樂)!'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춘 모여락(樂)!'은 시가 올해부터 진행 중인 전주형 청년자원봉사 사업으로, 지난 2월 청년 러닝크루들과 함께하는 전주올림픽 유치기원 캠페인과 지난달 개최된 외국인 청년 적응돌기 지원사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들의 손길로 겨울철 가로수를 보호하고, 따뜻한 거리 조성 등 지역 환경 개선에 직접 참여해 지역 공동체에 나눔과 온기를 전파할 수 있도록 뜨개질이 취미인 청년 4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1명당 노송광장의 나무 한 그루씩 배정받아 약 4개월 동안 나무에 입힐 뜨개옷을 기획하고 함께 제작하게 된다.

시는 청년들이 완성도 있는 뜨개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직접 기획한 도안에 맞는 뜨개실 및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뜨개옷 제작 시간 등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단순히 제작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 뜨개질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



함으로써 지역 청년들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1986년생~2007년생)은 오는 5월 11일까지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 '청춘금손'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년플랫폼인 전주청정지대(youth.jeonju.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오태영 전주시 청년활력과정장은 "청년들이 제작한 뜨개옷은 단순한 뜨개 작품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전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라며 "나만의 개성이 담긴 뜨개질로 노송광장 나무들을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킬 이번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평화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강연

전주시 평화도서관은 올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역사·문화·환경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문화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도록 일상속 문화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는 매주 수요일로 확대 개편돼 시행되고 있다.

올해 첫 강연은 오는 5월 2일 '기후 위기 시대,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문성숙 동화나래연구소 대표가 강연을 진행한다.

평소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후 관련 동극을 운영해 온 문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지역의 기후위기 피해 △전주의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 실천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평화도서관은 이어 오는 8월에는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안서영 주무관을 강사로 초청해 '문화로 알아가는 북한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 오는 10월과 11월에는 김경민 전북도역사문화교육원장이 각각 '전북도, 동아시아 해양교류사의 중심'과 '전북도, 한반도 역사문화의 꽃'을 주제로 강의에 나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회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화도서관(063-281-6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이되었다.

##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